

투데이

주택 매매·전셋값 급등 광주 상승률 전국 최고

올들어 16% 상승...U대회 선수촌 재건축·건설사 퇴출 영향

올들어 광주지역 주택의 매매·전세 가격이 급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주택가격 급등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광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2% 상승,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16.6%)에 이어 두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 5.8%보다 무려 1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2007~2010년 광주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평균 0.6% 상승해 전국 상승률(2.4%)을 밑도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가격도 2007~2010년 중 3.9%(전국 15.5%) 상승에 그쳤으나, 올들어 16.1%(전국 10.6%) 치솟아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주택가격의 급등 배경으로 중소형 주택의 수급 불일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개발 호재, 일시적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양건설·금광기업 등 지역 대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퇴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2008년 이후 기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30세 이상 7600여명이 순유입되고, 독신·2인가구 수 2010년 13만2000가구(32.3%)에서 2010년 23만7000가구(45.8%)로 늘어 주택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 선수촌 예정 부지인 화정·영주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올해 말까지 4000여가구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

광주지역의 전세가격대 매매가격 비율이 75.0%(5월)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더욱 좁혀짐에 따라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확대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중소형아파트 건설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고영한·박보영 대법관 후보에...최종인선 주목

조용호 광주고법원장도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 후임으로 광주 출신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과 순천 출신 박보영(여·50·16기) 변호사 등 7명이 추천되면서 이들의 대법관 선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영한 박보영 조용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고법원장과 박 변호사 이외에 조용호(56·10기·충남) 광주고법원장, 김용덕(53·12기·서울) 법원행정처 차장, 구옥서(56·8기·경북) 전 서울고법 원장, 윤인태(54·12기·울산) 창원지법원장, 조재연 변호사(55·12기·강원) 등 7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호남 출신은 이상훈 대법관(광주)과 퇴임을 앞둔 김지형 대법관(전주) 등 2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지형 대법관이 다음달 20일 퇴임할 경우 호남 출신은 1명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역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법관의 지역안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순천 출신 박보영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

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올해 1월 여성 변호사회장에 취임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계의 여성 대법관 선임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다 자칫 여성 대법관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법관 선임에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영란(55·10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이 작년 8월에 물러난 데 이어 전수안(59·8기) 대법관도 내년 7월로 임기가 끝나게 돼 여성 대법관의 맥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주 출신인 고영한 전주지법원장과 충남 청양 출신인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의 인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7명의 후보 중 2명을 선정한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최권일기자 cki@



블랙이글 편대의 '화려한 비행'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1'에서 블랙이글 편대가 멋진 비행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 급여는 100만원 광주지역 보육교사 근로조건 열악

89% 연장 근무수당 못받아

광주지역 보육교사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7.8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이 100만 원에 머물고 있는 데다 전체 교사의 89.1%가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보육정책포럼(공동대표 강은미·황정아·김은정)은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광주지역 보육교사 3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7.81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교사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보육교사 10명 중 8명 가량이

주 40시간 근로제(일일 8시간 5일 근무)의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50시간 초과 근무 교사는 23.4%에 달했다.

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해 연장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육교사가 89.1%에 달했다. 또한,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 교사가 94%,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는 교사가 92.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토요일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72.7%에 달했지만, 토요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은 보육교사는 11.8%에 그쳤다.

광주시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은 101만5660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

은 93만8426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70.2%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육교사의 83.3%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28%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56%는 연가와 휴가조차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1순위로 고용·임금 안전성 확보를 꼽았고, 2순위는 1인당 아동비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8시간 노동 실현, 휴게실 공간 도입, 임금차별 해소 등을 꼽았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에는 보육교사 6500여명이 만 5세 미만 아동 4만6000여명을 보육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박재순씨 내정

공석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한나라당 박재순(67) 전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진행된 농어촌공사 사장 공모에는 11명이 신청해 1차면접 절차를 거쳐 5명이 2차 인선 절차 대상자로 선정됐다. 2차 인선대상에 포함된 후보자는 박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태권 전 충남지사,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경안 전 농어촌공사 감사, 김재수 전 농림수



박재순

산식품부 차관 등 5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출신인 박 내정자는 9급(서기보) 공무원으로 출발,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뉴스 브리핑

송정역복합센터 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광주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과학기술회관 SC 컨벤션에서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오늘 도시광산기술원 광주 설립 위한 포럼

광주시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강은미 시정과 한국도시광산기술원 광주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교수, 관련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광산산업 육성과 한국도시광산기술원 광주 설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24일부터 '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전남도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주민들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도와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요청하면 상설점검반이 현지를 방문, 시설물 결함원인을 찾아내고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공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투자자 1명 모심

- 1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되는 물건이고
- 2 낙찰가 2억8000만원중 1/3이상 투자 하실 분
- 3 투자가 기간은 8월~1년정도
- 4 년 수익률이 최하 30%정도
- 5 법적으로 공동 소유 이전등기 합니다

※ 전화상담은 사절 합니다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풍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중-9092호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지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수령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만성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눈물을 흘릴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증적으로 치료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 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는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복서비스 · 개별 맞춤형 상담의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 정도 (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 (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전순위 대출시 90%에서 전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리 전순위 - 1년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642호) 대표 **1544-9430** 상담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 금리 - 연 5% - 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 - 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시세 - 80% + 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 - 8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642호) 대표 **1544-5248** 상담 **010-7112-3135**